

'22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16	서면회의	7/15	-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수형·김요수·김형순·양초롱·최정욱·최영호·한문철

② 방송사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

- 경영진 외 :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4	1	0	1	6	0	0	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6	1	0	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송편성	어린이 대상 교양, 스포츠 등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음	정율성동요경연대회, 지오파크 페스티벌 등 매년 개최 및 프로그램 방송 조치	'22.2.
보도	현재 중대재해법 자칫 경제활동 위축 우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뉴스데스크>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설치·“실효성 의문”(2.24) 등 방송 조치	"
"	<윤근수의 시사본색>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편, 전문적인 건축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및 현재 수사 중인 분이 참석하여 조사과정과 입증된 범죄 현황에 대한 설명 없어 아쉬움	시사보도책임자, 담당PD 의견 전달 및 향후 관련 사항 제작 시 반영 권고 조치(2.28)	"
"	각 당 후보의 공약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대통령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시사ON> 광주 전남 5대 지역공약 분석(3.4), 대선판 전격 해부(2.25), <본방을 보자> 본방토크 민주eC 대선 변수로 떠오른 호남(2.22, 3.1) 등 방송 조치	"
"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단독보도를 만들어 낸 것은 지역 대표언론으로서 매우 적절한 성과임. 앞으로도 지역의 소식 전국에 알리는 사명을 잘 수행 바람	<시사ON>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2.25), <뉴스데스크> 유가족-현대산업개발 배상 협의 마무리··붕괴 원인 수사 속도(2.22), 붕괴 원인 조사 일단락..HDC 책임 규명 아직(3.7), 총체적 부실이 원인..최고 수위 처벌(3.14) 등 방송 조치	"
교양	<리플레이스> 출연한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훑아 보고, 미래 광주를 여는 역동적인 토론을 만들어도 좋겠음	편성 책임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검토 권고 조치(2.28)	"
기타	홈페이지에 개편내용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홈페이지에 개편 안내 배너 게시(2.25) 조치	"
총 건수		7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편성	어린이 대상 교양, 스포츠 등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음	광주MBC의 주된 시청자는 중장년층이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시청자TV'나 '본방을 보자'의 아이টে으로 제작을 검토해 보겠음	○		
보도	현재 중대재해법 자칫 경제활동 위축 우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 두고 취재 보도하겠음	○		
"	<윤근수의 시사본색>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편, 전문적인 건축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및 현재 수사 중인 분이 참석하여 조사과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건축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음. 앞으로는 자막 등을 통해 더 친절하게 설명하겠으며, 또 수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정과 입증된 범죄 현황에 대한 설명 없어 아쉬움	사나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사유로 관련자들이 출연을 거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당 후보의 공약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대통령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중심으로 보도했지만 부족함이 있었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단독보도를 만들어 낸 것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매우 적절한 성과임. 앞으로도 지역의 소식 전국에 알리는 사명을 잘 수행 바람	여러 건의 단독보도로 서울 MBC의 특종상을 받았음.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해서 취재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밝은 소식들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리플레이스> 출연한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훑아 보고, 미래 광주를 여는 역동적인 토론을 만들어도 좋겠음	<리플레이스>는 KCA의 OTT형 숏폼 형식의 제작 지원 콘텐츠로, OTT(카카오TV, 네이버TV)와 유튜브를 우선 송출 플랫폼으로 하고, 지상파는 나중에 송출하는 구조임. 후속 작업으로 APP 개발을 시도하여 새로운 콘텐츠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함		○	
기타	홈페이지에 개편내용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홈페이지에 개편 안내 배너를 게시했으며, 다음부터는 개편 스팟 제작 등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2월)

* 서면 제출일 : 2022. 2. 16.(수)

* 총원 15명 중 7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수형, 김요수, 김형순, 양초롱, 최정욱, 최영호, 한문철(7명)

* 2022년 2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김수형 위원

-2월에 시행되는 대폭적인 TV 프로그램 개편에 많은 기대가 되는데, 개편내용에 대한 홍보가 수반되면 좋겠다는 의견임. 예를 들어 광주MBC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개편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면 좋겠음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여러 건의 광주MBC 단독보도를 만들어 낸 것은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의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응원합니다.

□ 김요수 위원

<리플레이스>

-여섯 개의 꼭지를 봤다. 재밌다. 지금은 생활과 일의 공간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정석 교수가 도시는 불균형 편중 때문에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도시문제의 핵심을 파악한다. 도시는 생명체이고,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짧지만 강렬하게 깨닫게 한다. 모종린 교수는 코로나 이후 이상적 도시를 제시한다. 직주락(직장+주거+즐길 거리)이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 진출이 성공이라는 생각과 부동산에 함몰된 생각에서 벗어나 가까이(15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꿀잼 동네가 되려면 로컬 크리에이터(그곳에 사는 사람)의 '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동네 특색을 갖도록 해야 한다. 홍상용 건축사는 도시 표준화와 생산성 강조가 전국을 똑같은 복제 도시로 만들고, 동네와 지역경제를 없앤다. 우리나라 도시 설계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개발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한다.

<리플레이스>는 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포인트 강의처럼 핵심을 꼭 집어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적절한 자료 화면이 생각을 확장하게 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핵심 주제를 잘 선정하였고, 빠른 템포가 연이어서 보게 한다. 여기 출연한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훑어 보고, 미래 광주를 여는 다이나믹한 토론(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편집)을 만들어도 좋겠다.

□ 김형순 위원

사고 예방의 근본적 대안

-최근 중대재해법 발효로 벌써 4호까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고를 유발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정치와 완전히 독립적인 철저한 사고조사 기관 및 사고조사 전문성 확보 및 정보 공개, 근본 원인 제공자가 사업주, 근로자, 감독자 누구이건 직접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고조사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작업자 부주의를 어떻게 줄이고,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는 사업주, 책임자, 시설, 등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고 정작 작업자나 원인 유발자, 규정 미 준수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가 정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외국의 사고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국의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석유화학사고 조사위원회와 같은 사례를 Benchmark 하여 특집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대재해법은 자칫하면 범법자만 양산하고,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 양초롱 위원

-신년 개편과 사업 준비, 여러 취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가운데도 지난 의견에 대한 조치 및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획하는 부분들과 의견을 반영해, 그리고 제작 여건을 고려해 잘 고민하며 추진할 거라 사료됩니다.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 중 4시~6시 경우 재방송이 많은데 여건이 되면 시청자 분석 후 어린이(유아, 초등, 장애 포함) 대상의 교양이나 스포츠 등과 관련해 가족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체 노출이 많은 미래 세대의 경우, 다른 매체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의미와 내용에 기반해 여러 매체(텔레비전, 유튜브)로 확산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을 듯해 보입니다.

□ 최정욱 위원

-<윤근수의 시사분석>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1.23)

생방송이다 보니 자문의들의 전문적인 건축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건축

용어 설명 및 건축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이해가 하기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바리, 슬라브, PIT층, 무량판설계 및 구조 등.

현재 사고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밝혀진 것이 어디까지인지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문의에 이상배 도시재생국장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님께서 참여하였는데 현재 수사 중인 분이 참석하여 조사과정과 입증된 범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호 위원

-<오매 전라도> 낭만 가득한 겨울 여행! 차크닉 떠나요(1.19)

국내 최초 노사 상생 사업으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든 자동차를 통해 나주 곳곳의 여행지를 소개하며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차량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제2, 제3의 노사화합 일자리가 만들어져 우리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갈등의 장을 화합으로 대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한층 어려워진 여행을 이러한 차크닉을 통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준 것에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광주 인근 나주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불회사, 나주호, 드들강)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준비 없이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좋은 구경거리들이 많다는 점을 소개해줘 “이번 주말에는 근교 나주로 놀러 가볼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한문철 위원

-뉴스 ‘공식선거 운동 돌입...호남쟁탈전’(2월 15일)

2월 15일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함에 따라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각 당의 유세차량이 자리를 잡은 현장을 스케치하여 선거운동 및 유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 정부의 재집권 호소를 위해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권심판을 강조하는 송기석 국민의힘 광주총괄선대위원장의 연설내용을 통해 거대정당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시장 상인과 만남의 내용을 담아 각 정당의 특성을 포인트 있게 잡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선거운동 관련 이슈에서 가십까지 거의 매일 빠짐없이 전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킥보드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기존 선거운동 방식이 아닌 신 선거운동 문화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각 대통령 후보들이 호남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 분석해주는 다소 무겁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집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사 토론 형태로 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대담형식으로 펼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당의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발표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 전달해 시청자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가 만든 TV> ‘가사문학이 뭐길래’(2월 5일)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을 중심으로 가사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문학의 정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대적 배경의 정리로 역사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면양정,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 송강정 등의 내력과 주요 인물을 함께 설명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담양 여행을 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누각, 정자의 경치와 국악 BMG 등이 잘 어울리고, 차분한 해설이 돋보였습니다.